

힘차게 새출발하는 현대의 일렉트릭과 건설기계

코멘터리

대표 차트

지난주 주주는 ...

① 현대미포조선이 노르웨이 DSD로부터 MR탱커 2척과 읍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비나신 건조, Tier II 스펙에 신조선가는 \$32m입니다. Tier II 슬롯은 모두 팔았고, 그 다음 Tier III 수주 분위기와 신조선가 향방이 중요한 투자 관전포인트입니다.

② 노후 개조 VLOC 침몰 사건으로 Polaris의 VLOC 신조투자가 더 빨라져야 합니다. 3척을 발주한 현대중공업에 추가 발주를 협의 중입니다. Polaris 외에도 다수 선주들이 VALE COA를 따내서 VLOC를 발주한다는 발주설들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LNG Fuel 엔진과 LNGBV의 개화기입니다...

③ MAN의 ME-GI에 대적하는 Wartsila의 XDF 엔진을 장착한 LNG선이 삼성중공업에서 세계 최초 인도되었습니다. 향후 XDF vs. ME-GI의 경쟁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 두산엔진은 양쪽 모두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SCF, EGR 판매를 생각할 때 ME-GI 판매가 우리 엔진사들에게 유리하긴 합니다.

④ STX조선이 건조한 Shell의 LNGBV(LNG Bunkering Vessel)가 조선 유럽 현지에 도착해 벙커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차 SCF의 LNG-fuel 아프리카막스 탱커도 이곳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LNGBV도 이미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건설기계와 일렉트릭에 모두 좋은 뉴스들입니다.

⑤ 현대일렉트릭은 고려아연에 150MWh의 한국 최대규모 ESS(에너지 저장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00억원 시스템은 올해 11월까지 납품키로 했습니다. ESS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신규 석탄 건설 중지와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 가속화 에너지정책에 맞물려 국내에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종합 ESS 서비스/시스템 공급사로써 3개 회사 정도가 언급되는데 현대일렉트릭의 위상이 높습니다. 동사의 현재 2조원 초반 매출에 신사업이 얼마나 빨리, 많이 붙을지 기대됩니다.

⑥ 현대건설기계는, 얼마전 올해 매출 3조원을 제시한 이후, 또다시 2023년 매출 7조원 포부를 밝혔습니다. CNHi와의 협력강화, R&D 투자증가, 9월 유럽 총괄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선진시장 판매 확대를 도모합니다.

▶ 삼성중공업 2Q17리뷰: Martin Linge에서 큰 비용 발생했지만 C/O 환입으로 대규모 적자는 모면

(십억원)

삼성중공업	2Q16	3Q16	4Q16	1Q17	2Q17①	y-y	q-q	컨센서스 07월27일	당사②
매출액	2,720.8	2,777.8	2,385.5	2,437.0	2,299.7	-15%	-6%	2,027.5	2,109.3
영업이익	-283.8	84.1	46.4	27.4	20.6	흑전	-25%	43.1	60.9
영업외	67.9	27.3	-16.3	21.7	8.9	-87%	-59%	-3.5	-23.3
세전이익	-215.8	111.4	30.1	49.2	29.5	흑전	-40%	39.7	37.5
순이익	-212.4	128.6	-70.9	58.7	22.7	흑전	-61%	32.0	44.8
지배주주순이익	-185.7	130.1	-82.3	58.2	28.6	흑전	-51%	32.4	42.0
영업이익률	-10.4%	3.0%	1.9%	1.1%	0.9%	11.3%p	-0.2%p	2.1%	2.9%
세전이익률	-7.9%	4.0%	1.3%	2.0%	1.3%	9.2%p	-0.7%p	2.0%	1.8%
순이익률	-7.8%	4.6%	-3.0%	2.4%	1.0%	8.8%p	-1.4%p	1.6%	2.1%
일회성 요인 제거한 영업이익과 OPM									
일회성					2Q17				
					▽ 일회성손실	-162.0			
					▲ C/O(e)	122.6			
영업이익(일회성 제거)						60.0			
영업이익률						2.6%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현대중공업 그룹 사업회사들

▲ 현대일렉트릭, 고려아연에 ESS 공급...500억원-150MWh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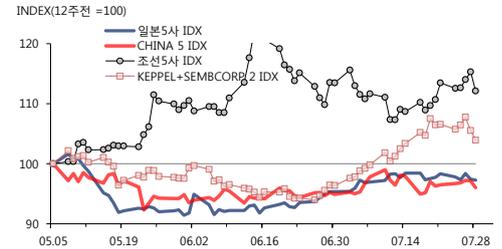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2023년까지 매출 7조원 달성할 것"

▶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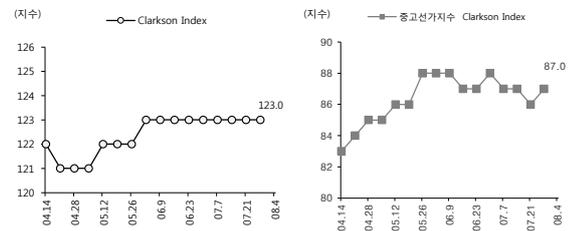
△ Wartsila의 첫 XDF 7월말 세상에 인도

△ Shell의 LNGBV, 유럽 도착해 곧 데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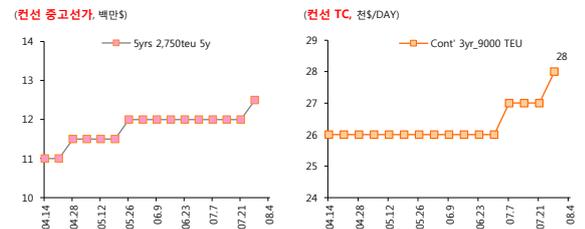
▶ 한/중/일/싱 추가 추세: 시장 강세에 한국 조선도 아웃퍼폼



▶ 중고선가지수 1p 다시 상승



▶ 컨테이너선 운임, 중고선가 상승



ASP & 실적관련(국내외)

▽ Clarksons 신조선가지수 포함, 중고선가지수 1p 올라 지난주 하락 만회!

- 신조선가지수는 파나막스 이하 벌크선과 LPG가 하락했지만 지수는 제자리를 지킴
- 지난주 1p 하락했던 중고선가지수는 지난주 1p 다시 상승해 87p 복귀: Feeder 컨선 중고선가 상승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LNG: LNGBV, DF엔진

△ Kogas, 해외 FSRU 시장 진출

- Kogas는 H-Line, 팬오션, 현대LNG, SK해운, 대한해운과 팀을 이뤄
- 해외 LNG FSRU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힘
- 현재 8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30여개의 FSRU가 가동 중

△ Wartsila의 첫 XDF 7월말 세상에 인도

- low-pressure gas-injection XDF 엔진이 SK Audace호에 장착되어 28일 처음으로 인도됨
- 쌍둥이 배에 모두 XDF가 장착되었는데, 1호선은 Total에 20년 용선되어 Sabine Pass LNG를 운송, 2호선은 Ichthys LNG 담당(2018년1월 인도 예정)
- 해당 선박은 2013년3월 DFDE로 발주되었다가 1년 후 X62DF로 계약 변경

△ Shell의 LNGBV, 유럽 도착해 곧 데뷔

- STX에서 건조한 6,500cbm LNGBV "Cardissa"가
- 6월 초 출항해, 이번주 초 유럽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함
- 러시아 SCF의 LNG-Fuel 아프리카막스탱커 4척이 고객이 될 예정
- 시장의 LNGBV는
- 4월 Engie, NYK, Nitsubishi, Fluxys의 5,000cbm LNGBV Engie Zeebrugge가 가동을 시작했고
- 이후 독일 Anthony Veder와 스웨덴 Sirius의 5,800cbm Coralius가 벙커링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 이번이 3번째 도착 및 서비스 개시임
- 4번째로 7,500cbm의 Bernhard Schulte의 LNGBV가 내년에 인도될 예정

▷ DSME의 Arc7 2호선~15호선 ice trial 논쟁

- SCF의 1호선은 지난 3월 ice trial을 마친 가운데
- Dynagas에서 인도 예정인 2호선 "Boris Vilkitsky"의 ice trial 여부에 대해 논쟁
- ice trial을 해야할 경우 8월말 출항해야하고, 1호선 테스트로 같음하면 11월 인도
- 나머지 14척은 3곳 용선 선사에서 발주했는데 Dynagas가 5척, Teekay+China LNG Shipping이 6척, MOL+China Shipping Dev.rk 3척 담당
- SCF의 1호선 ice trial로 후속 테스트는 필요 없는지, 각 발주처별로 1호선만 ice trial을 할지, 전선을 테스트할지에 대해 논의 중

▶ 업황

△ Fredriksen 2000년 이전 탱커 모두 매각 완료

- 현대중공업에서 1997년 건조한 153k 탱커를 \$9m(스크랩 가격 \$0.5m)에 매각함으로써
- 1990년대 건조 선박 모두를 매각 완료한 것으로 전함

▷ 전세계 조선소 10개 중 6개 증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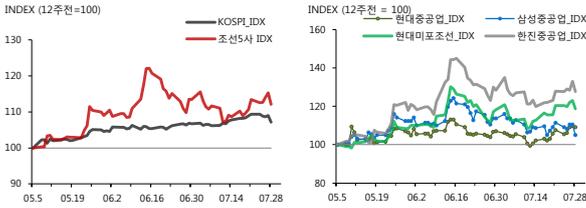
- 클락슨 보고서, 전세계 조선소 '2009년 934개→현재 358개'로 줄어듦
- 게다가 현재 가동 중인 조선사의 30%가 연말에 건조물량이 떨어짐
- 섹터별로는 벌크가 가장 타격이 커서 97개 조선사 남음: 2009년 대비 67% 감소
- 탱커는 89개 조선사로 55% 감소, 컨테이너선은 56개 조선사로 40% 감소에 그침

<http://lnr.li/bEX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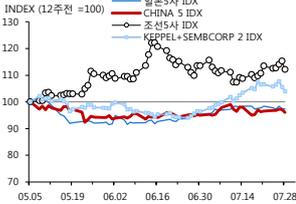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개, 올해 1개를 닫음 → 현대중공업도 도크 추가 폐쇄 검토중
자금난에 시달린 대우조선해양은 2개 플로팅 도크를 매각 → 올해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은 1~2개 도크를 추가 매각할 계획
삼성중공업도 최근 2개 도크를 폐쇄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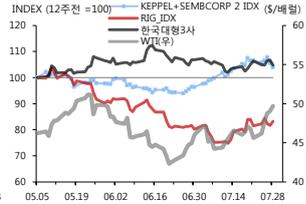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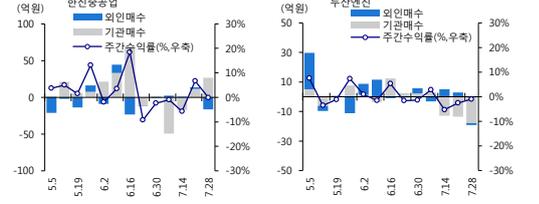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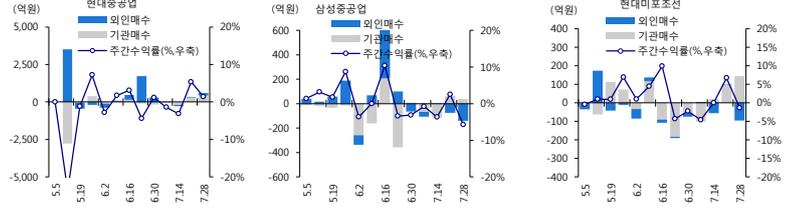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산업은행, 대한조선 900억원 신규자금 지원 논란

<http://nr.ii/UR3kv>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한조선에 9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
지난해 확립한 중소조선소 구조조정 원칙을 사실상 어긴 것이어서 다른 조선소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발
군산조선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자체 실시한 결과,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동 중단을 결정
하지만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감을 맡기기로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미포조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21년 무분규 기록 눈앞

<http://nr.ii/otHzm>

오는 28일 찬반투표 후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현대미포조선은 21년 연속 무분규 기록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정기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무재해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
유휴인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노사공동위원회 활동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해 제반 인력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 현대삼호중공업 올해 임금교섭 타결...기본급 동결

<http://nr.ii/ncxoF>

국내 대형 조선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7년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
노조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사 잠정합의안을 57.6%(1142명 찬성)의 찬성으로 가결
△기본급 동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노사화합 격려금 100만원 지급 △경영위기 극복 격려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
특히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여름휴가를 1주 연장해 총 2주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

△ 현대중, 호텔 3곳 모두 매각... "경영개선 목표 90% 달성"

<http://nr.ii/g9TKw>

자회사인 호텔현대를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 호텔현대는 경주·울산·목포 등 전국 세 곳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각 금액은 2000억원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프리 IPO(4000억원), 현대미포조선의 현대로보틱스 지분 매각(3500억원)에 이어 호텔현대 매각으로 올해에만 1조원 자금을 확보
매각은 현대중공업이 작년 6월 조선 업황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3조5000억원 규모 경영 개선 계획의 일환
: 호텔 매각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3조원 이상 경영 개선 계획을 집행해 목표의 90% 가까이를 달성
하반기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업 철수 방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추진 중이며, 국내외 비핵심 사업 정리도 마무리 단계
> 하이투자증권이 어디로 매각될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도 2개 도크 가동 중단

<http://nr.ii/H2rvT>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해상 플로팅 도크 1호기인 'G1 도크'가 이달 31일 선박 진수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
앞서 지난달 말에는 육상도크 중 가장 오래된 육상 '1도크'가 가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
육상 도크 3기와 해상 플로팅 도크 4기, 해양플랜트 전용도크 1기 등 총 8기의 도크를 보유
G1 도크는 2001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뒤 이듬해 1월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의 선박 건조에 성공한 역사적인 시설
올해 수주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엔 수주한 선박은 1~2년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 당분간 도크 공백이 불가피

▽ "삼성중 '크레인 사고' 비정규직 휴업수당 못 받아"...檢 고발

<http://nr.ii/KBefo>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5월1일 크레인 붕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휴업 기간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를 검찰에 고발
대처위는 "크레인 사고로 2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다"며 ...
...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은 3일 치 휴업수당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협의해, 손해배상금을 사내협력사들에 이미 지급했다"며 ...
...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음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1조 손실' 해양플랜트 청구소송서 패소

<http://nr.ii/f69Lk>

2015년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반잠수식 시추선(세미리그) 4척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약 1조원을 보전해달라며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
2011년 송가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적당 약 6000억원에 수주

: 이후 대우조선은 송가 측의 설계 오류 등으로 건조 기간이 1년가량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

시추선 4척은 2015년 인도됐지만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 규모는 약 1조원: 이에 대우조선은 송가오프쇼어에 약 40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음

▷ 대우조선해양, 매각 웰리브에 100억 재투자

<http://nr.ii/GpcWp>

대우조선해양이 웰리브 인수 펀드에 후순위 출자자(LP)로 참여

재인수를 염두에 뒀다기 보다 기존 사업관계의 지속을 보증받으려는 인수자의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

△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 상여금 환수 완료

<http://nr.ii/aaX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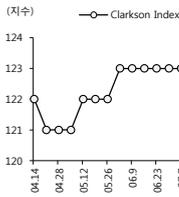
고재호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회사를 이끌면서

총 7억8,100만원 상여금 수령: 2013년 2억8,700만원, 2014년 3억6,100만원, 2015년 1억3,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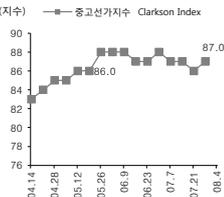
대우조선해양은 이 시기에 재직했던 임원들 중 아직 현직에 있는 이들의 상여금도 회수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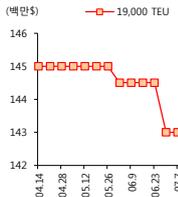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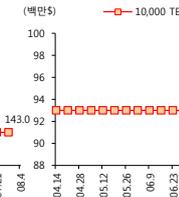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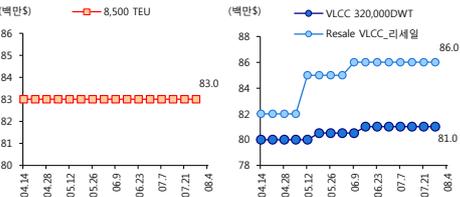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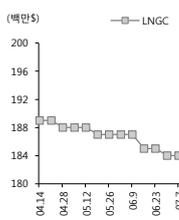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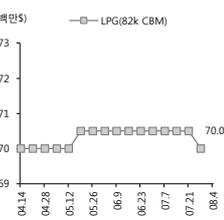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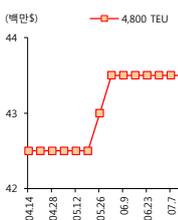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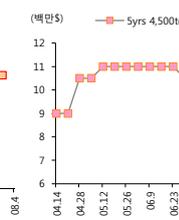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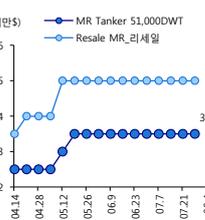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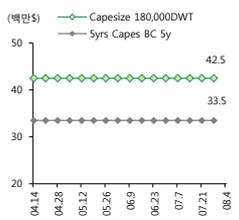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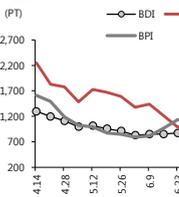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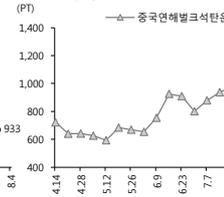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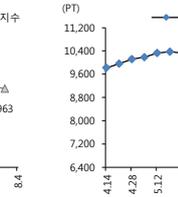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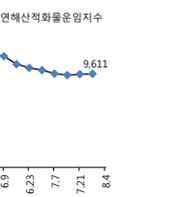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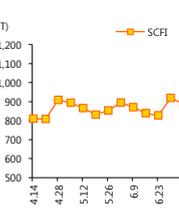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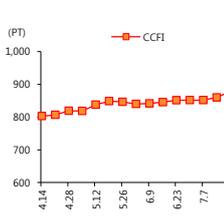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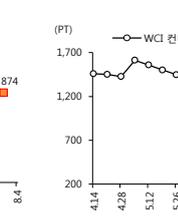
▶컨선 지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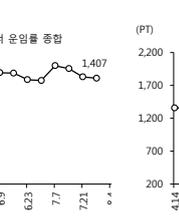
▶WCI 컨테이너 운임률 종합



▶Drewry 동광-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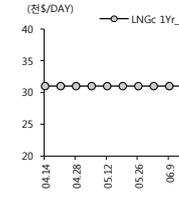


▶Peter Doehle 컨선 TC 평가 지수 4250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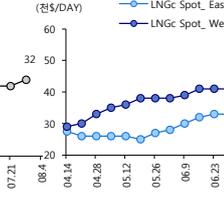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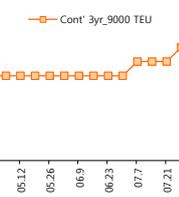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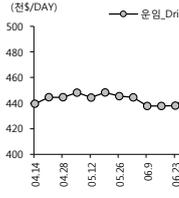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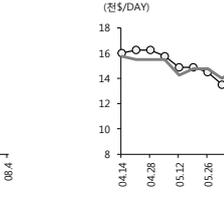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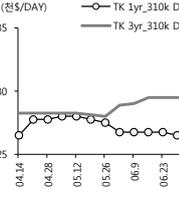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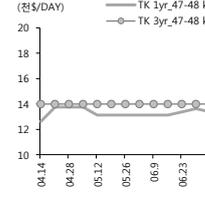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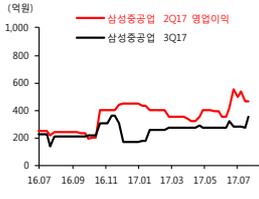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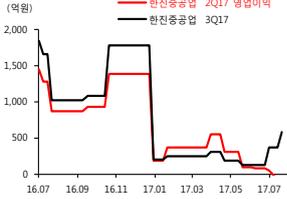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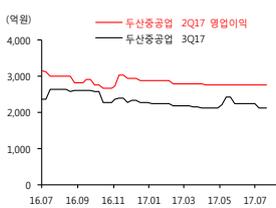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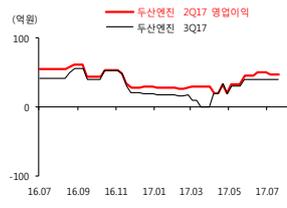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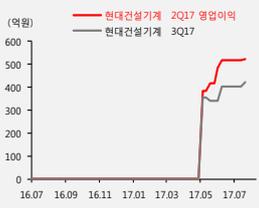
▶ 두산엔진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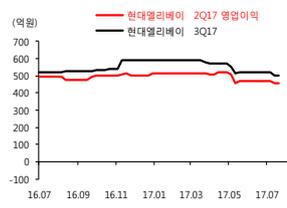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01	17.07.08	17.07.15	17.07.22	17.07.2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1,213	11,206	13,173	4,946	6,109	5,977	6,100	6,241	6,478	31%	6%	27.8	180,000
	삼성중공업	235	260	281	313	291	287	274	271	282	-10%	-3%	40.8	11,500
	현대미포조선	5,390	5,627	3,878	3,750	4,820	6,383	6,383	6,356	6,940	85%	44%	15.8	109,500
	한진중공업	454	454	108	-203	-269	-103	-103	-123	-123	적지	적지	-36.5	4,475
두산	두산중공업	1,966	1,739	1,490	1,433	1,454	1,464	1,411	1,425	1,425	-1%	-2%	14.6	20,800
	두산인프라코어	909	778	785	813	808	816	829	832	832	2%	3%	9.3	7,730
	두산엔진	170	188	409	172	178	203	193	193	198	15%	11%	20.1	3,98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0	25,906	28,411	29,191	29,191	30,679	30,732			11.6	356,500
	현대일렉트릭	0	0	0	26,837	27,046	27,560	27,560	28,368	28,256			11.5	326,000
	LS산전	3,382	3,385	3,593	3,563	3,673	3,673	3,674	3,706	3,862	8%	5%	14.9	57,700
	현대엘리베이터	5,703	5,703	5,580	5,387	5,326	5,326	5,326	5,351	5,351	-1%	0%	10.6	56,700
방산	현대로템	692	756	687	645	639	648	614	608	523	-19%	-18%	36.9	19,300
	한국항공우주	2,646	2,619	2,560	2,503	2,456	2,439	2,422	2,321	2,254	-10%	-8%	22.7	51,200
	한화테크윈	2,653	2,417	2,249	2,266	2,200	2,163	2,140	2,037	1,964	-13%	-11%	20.3	39,800
피팅	LIG넥스원	3,917	3,848	3,875	3,768	3,705	3,624	3,619	3,501	4,480	19%	21%	18.4	82,500
	성광벤드	198	106	-27	-83	-75	-75	-75	-82	82	적지	적지	-120.8	9,850
	태광	206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1.8	9,780
하이록코리아	1,888	1,910	1,913	1,909	1,896	1,896	1,896	1,837	1,837	-4%	-3%	12.5	23,0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01	17.07.08	17.07.15	17.07.22	17.07.28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33,823	231,775	309,552	209,808	207,712	207,239	207,239	207,352	208,977	3%	2%	0.9
	삼성중공업	17,381	17,225	17,300	18,596	18,788	18,804	18,776	18,776	18,733	2%	1%	0.6
	현대미포조선	109,658	108,677	109,721	113,674	113,175	116,105	116,105	116,073	116,735	6%	3%	0.9
	한진중공업	11,120	11,120	11,076	8,806	8,453	8,833	8,833	8,810	8,810	-1%	4%	0.5
두산	두산중공업	33,074	31,937	31,093	31,446	30,702	30,714	30,765	30,765	30,765	5%	7%	0.7
	두산인프라코어	11,369	10,800	10,565	10,409	10,684	10,646	10,622	10,622	10,622	8%	9%	0.7
	두산엔진	7,882	7,763	7,700	7,857	7,877	7,920	7,920	7,920	7,945	2%	2%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0	233,248	231,663	231,663	231,663	231,663	231,741	13%	14%	1.5
	현대일렉트릭	0	0	0	232,775	232,450	232,450	232,450	232,450	232,690	12%	13%	1.4
	LS산전	38,873	38,865	39,211	39,138	38,940	38,940	38,938	38,874	38,960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8,058	38,876	38,291	37,757	37,757	37,757	37,757	37,757	37,757	14%	15%	1.1
방산	현대로템	16,972	17,125	17,049	17,061	17,059	17,066	17,042	17,035	16,964	3%	5%	1.5
	한국항공우주	16,625	16,591	16,469	16,307	16,256	16,234	16,195	16,045	15,962	14%	16%	3.2
	한화테크윈	47,208	48,838	46,958	45,433	45,667	45,520	45,502	45,387	45,234	4%	6%	0.9
피팅	LIG넥스원	31,536	31,343	31,559	31,472	31,402	31,298	31,296	31,150	31,822	14%	13%	2.6
	성광벤드	16,603	16,496	16,529	16,512	16,540	16,540	16,540	16,540	16,540	0%	2%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495	23,868	24,035	24,001	23,849	23,849	23,849	23,776	23,776	8%	8%	1.0	

출처: Dataguide

키 차트

▶ 기계 회사들 2Q17 잠정 실적발표

<표> 현대로템 2Q17 Review 20170727 (십억KRW, %)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매출액	722	682	856	651	669	-7.4%	2.7%	697	-4.1%	2,985	2,930
영업이익	39	8	29	35	15	-60.7%	-56.0%	21	-25.4%	106	119
세전이익	23	-17	15	5	2	-90.7%	-54.2%	12	-82.3%	23	62
순이익	23	-18	16	4	2	-92.0%	-59.0%	8	-78.3%	22	48
영업이익률	5.4%	1.1%	3.4%	5.3%	2.3%	-3.1%p	-3.1%p	2.9%	-0.7%p	3.6%	4.0%
세전이익률	3.2%	-2.4%	1.7%	0.7%	0.3%	-2.9%p	-0.4%p	1.7%	-1.4%p	0.8%	2.1%
순이익률	3.1%	-2.6%	1.9%	0.7%	0.3%	-2.9%p	-0.4%p	1.2%	-0.9%p	0.7%	1.6%

<표> LS산전 2Q17 Review 20170724 (십억KR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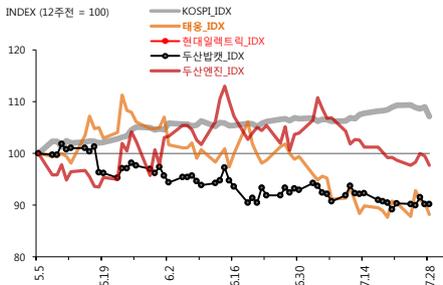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매출액	525	524	663	559	588	12.0%	5.2%	567	3.8%	2,214	2,380
영업이익	32	30	28	36	44	37.3%	21.9%	39	11.4%	124	171
세전이익	26	28	25	22	43	65.3%	98.5%	41	4.1%	102	148
순이익	20	22	21	19	33	60.8%	70.5%	27	19.7%	81	117
영업이익률	6.1%	5.7%	4.2%	6.4%	7.4%	1.4%p	1.0%p	6.9%	0.5%p	5.6%	7.2%
세전이익률	5.0%	5.4%	3.8%	3.9%	7.3%	2.4%p	3.4%p	7.3%	0.0%p	4.6%	6.2%
순이익률	3.9%	4.1%	3.2%	3.4%	5.6%	1.7%p	2.1%p	4.8%	0.7%p	3.6%	4.9%

<표> 씨에스윈드 2Q17 Review 20170724 (십억KRW, %)

	2Q16	3Q16	4Q16	1Q17	2Q17P@	y-y	q-q 컨센서스@	GAP(@/B-1)	2016	2017E	
매출액	109	52	75	67	83	-24.2%	24.5%	70	18.1%	311	301
영업이익	2	-4	-27	5	11	534.9%	123.7%	9	33.5%	-24	33
세전이익	12	-6	-37	13	14	17.5%	4.9%	7	110.3%	-17	42
순이익	12	-7	-34	12	12	7.3%	5.0%	6	121.8%	-17	37
영업이익률	1.6%	-8.5%	-35.9%	7.7%	13.8%	12.1%p	6.1%p	12.2%	1.6%p	-7.6%	11.0%
세전이익률	10.7%	-11.8%	-49.6%	19.7%	16.6%	5.9%p	-3.1%p	9.3%	7.3%p	-5.4%	14.1%
순이익률	10.6%	-14.2%	-44.9%	17.8%	15.0%	4.4%p	-2.8%p	8.0%	7.0%p	-5.5%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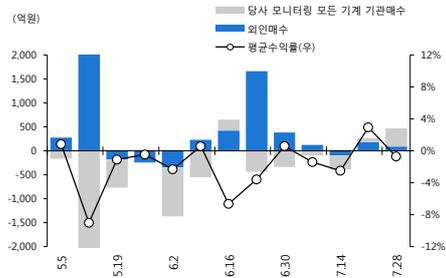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율



기계 업종 뉴스

ESS

▲ 현대일렉트릭, 고려아연에 ESS 공급...500억원·150MWh 규모

<http://lnr.li/OO6pe>

27일 고려아연과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효율화 설비구축 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계약식 오는 11월까지 울산시 울주군 소재 고려아연 제련공장에 저장용량 15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
 ESS는 전기를 저장장치에 담았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피크타임에 전력 부족을 방지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설비
 ESS를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투자금액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전세계 ESS 시장은 지난해 26억달러에서 2025년 292억달러로 1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는 ESS 설비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4.3G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건설기계

△ 두산인프라코어, 中 자회사에 1124.9억 채무보증

<http://nr.li/eiYVq>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DICC)에 대한 1124억9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중국법인 차입금 구조의 안정성 강화 및 중국법인 매출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DICC가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론(Loan)에 대해 당사가 지급보증 하는 것

△ 두산인프라 BW 주주청약 30%그쳐

<http://nr.li/TLUWS>

26일 기존 주주들로부터 1520억원어치 BW 청약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은 이 중 3분의 1을 웃도는 580억원어치를 청약

△ 두산인프라코어 BW 3480억 일반청약 27~28일 실시

<http://nr.li/TsSB6>

두산인프라코어 BW는 표면이자 2%, 만기수익률 4.75%: 만기는 5년이며 조기상환청구권은 3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은 8030원으로 가격 재조정(리픽싱) 조건 80%가 붙어 주가가 20%수준인 6420원까지 하락하더라도 행사가액을 조정 가능

△ 현대건설기계, 9월 유럽 총괄법인 설립

<http://nr.li/zBH2z>

하반기 유럽, 미주 등 세계 시장 판매량 확대에 나섬: 이를 위해 9월 유럽 지역을 통합 관리할 법인 사무실을 벨기에 테센데를로(Tessenderlo)에 설립
오는 9월 벨기에 북동부 도시 테센데를로(Tessenderlo)에 유럽법인 통합 신사옥을 완공할 예정: 현재 사옥은 벨기에 헤일(Geel)

통합 신사옥은 10만㎡ 규모에 사무동과 전시장, 교육장, 부품창고 등을 포함: 기존 사옥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부품 공급 능력을 갖춘 예정
신사옥을 거점으로 유럽 지역의 영업과 건설기계 부품 공급을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

: 이를 통해 올해 유럽지역 매출을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3800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상반기에는 영국의 글로벌 종합건설장비 기업 CNHi에 미니굴삭기 2200대를 공급: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
최근에는 미국 올드캐슬과 지게차 285대, 호주 뉴질랜드 포터하이퍼와 중형 굴삭기를 포함한 건설장비 145대 등을 잇달아 수출

△ 현대건설기계 "2023년까지 매출 7조원 달성할 것"

<http://nr.li/PhZ00>

현대건설기계 공기업 사장은 2021년까지 굴삭기 판매 라인업 개발 등 기술개발 부문에 6600억원을 투자해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톱 티어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23년까지 매출 7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Top 5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 밝힘

△ 현대건설기계, 포스트차이나 인도서 '굴삭기 2000여대' 팔았다

<http://nr.li/OrZUP>

올 상반기에만 2000여대 판매... 지난해 전체 판매량 2600여대 돌파 예상

지난해 전체 판매량 2600여대로 현지 시장 2위를 기록할 때보다 가파른 상승세로 하반기 점유율 확대에 파란불

2008년 11월 당시 현대중공업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굴삭기 공장을 설립한 이래 2009년부터 현지 시장에서 제품판매를 시작

JCB 인디아, 캐터필라 등 영미권 업체와 현지 업체가 주도하던 인도에서 ...

...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과 함께 딜러망과 고객 지원 서비스 강화, 현지형 모델 확보, 품질 개선 등으로 시장을 공략

인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향후 5년간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454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 중 70%가 전력, 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금액
코트라는 인도 굴삭기 시장이 2015년 23%, 2016년 35% 성장했으며 이 같은 성장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

추세에 맞춰 현대건설기계는 현지 공장 설비 확충에 돌입: 현지 생산 설비를 강화해 인도 시장을 발판으로 서남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

두산그룹 & 두산중공업

▷ 두산그룹, 450명 정규직 전환...고용안정 박차

<http://nr.li/g6XlX>

계약직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 별로 신규 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 두산 분당센터 빌딩, 완공 전 미리 판다

<http://nr.li/J0v14>

그룹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짓고 있는 '두산 분당센터 빌딩'(조감도)의 선매각에 나섬: 2019년 완공을 목표

자회사인 부동산개발회사 디비씨가 짓는 오피스 빌딩을 매각 후 재입차(세일앤드리스백)하는 거래: 거래에 성공하면 두산그룹은 5000억원 이상의 자금 확보

▷ 신고리원전 시공 3사 "일시중단 비용, 최종결론 나면 청구"

<http://nr.li/7q8QW>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공사중단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비용을
신고리 5-6호기 관련 최종 결론이 난 이후 한꺼번에 산정해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 두산重, 美 가스터빈 업체 품었다

<http://nr.li/zHWA5>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업체 'ACT 인디펜던트 터보 서비스'의 인수를 완료, '두산 터보머시너리 서비스'로 새롭게 출범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 출자전환 376만주 보호예수 무료

<http://nr.li/eQ2VO>

제3차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으로 보호예수된 보통주 376만4043주의 보호예수기간인 만료됐다고 25일 공시
보호예수주식의 명의인은 한국산업은행 외 6개사이며, 반환가능일은 오는 7월 26일부터

기타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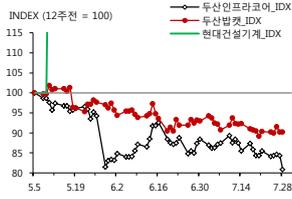
△ STX엔진, 현대중공업과 386억원 규모 공급계약

<http://nr.li/Q9wQ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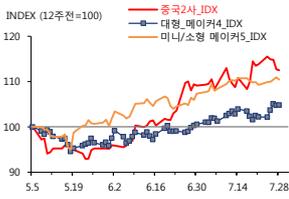
주기관 디젤엔진 및 발전기 세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
> 군함 엔진으로 보임니다.

건설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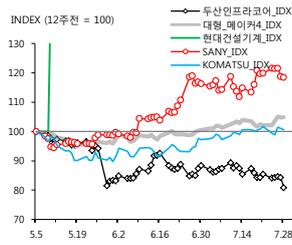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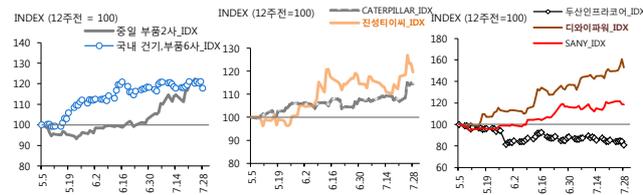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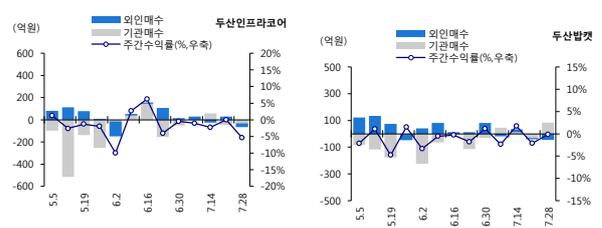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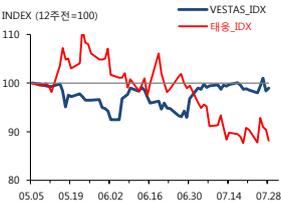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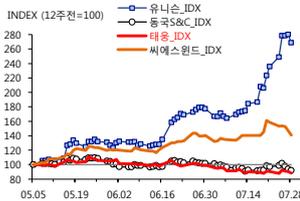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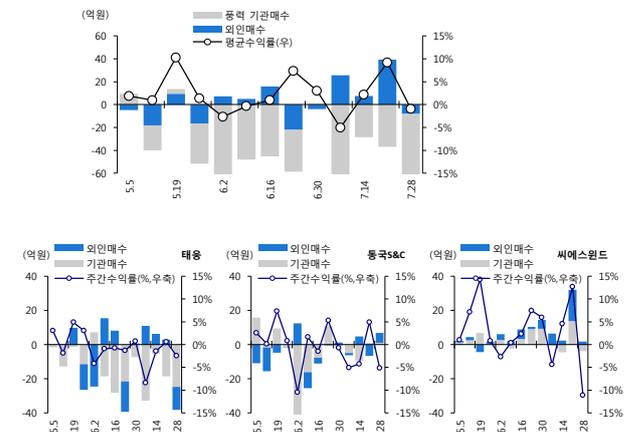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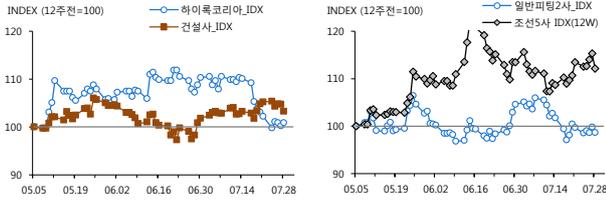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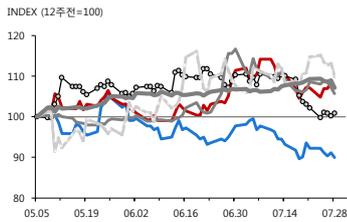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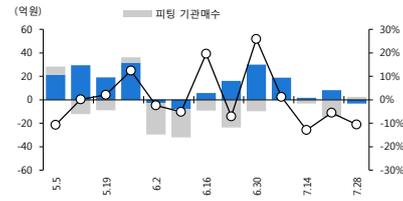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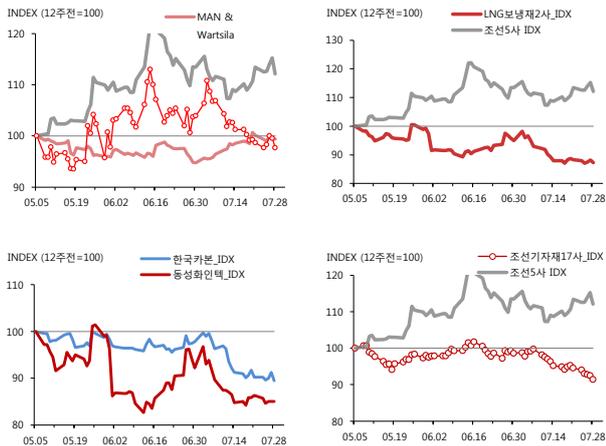
피팅업 수급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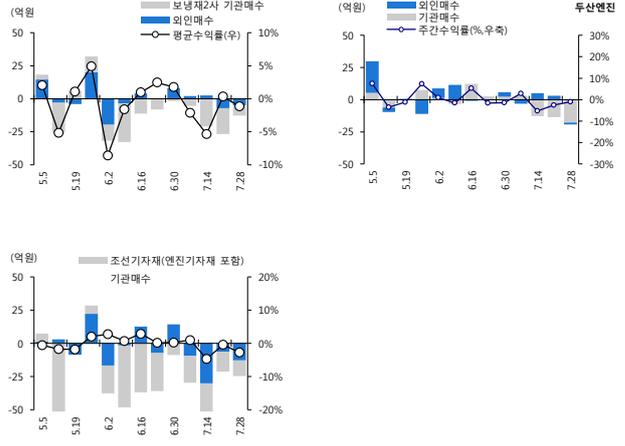
▶ 엔진3사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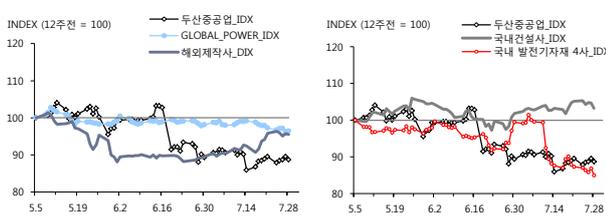
▶ 두산엔진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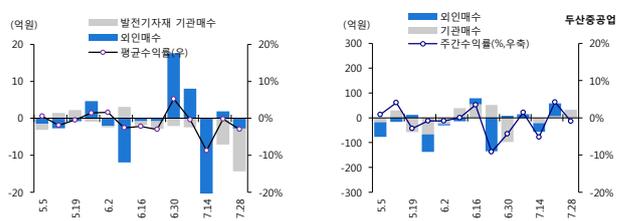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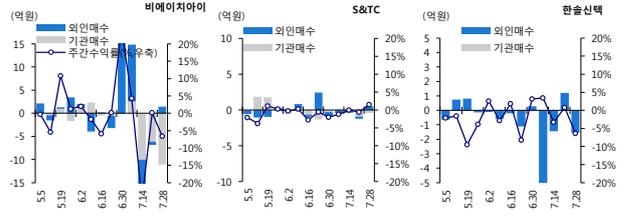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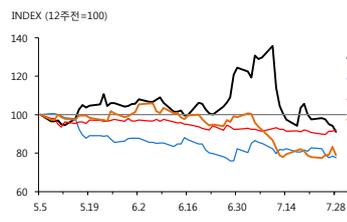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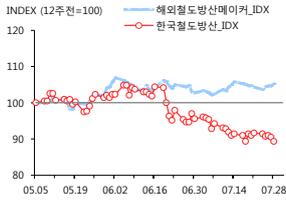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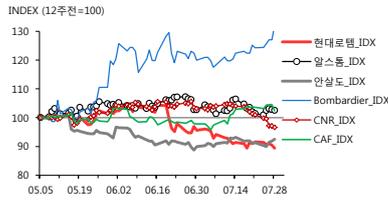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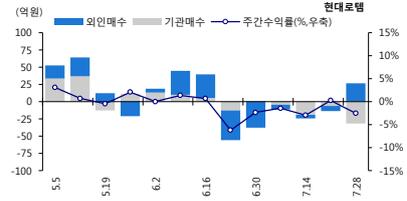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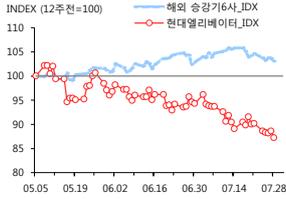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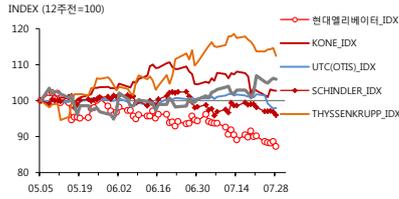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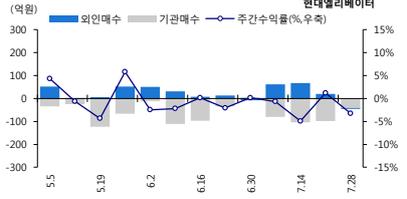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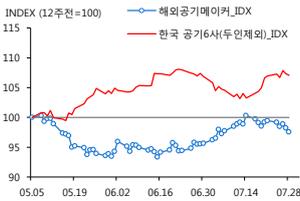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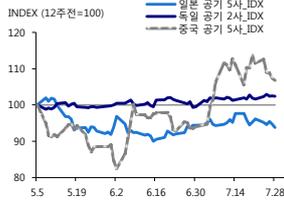


공작기계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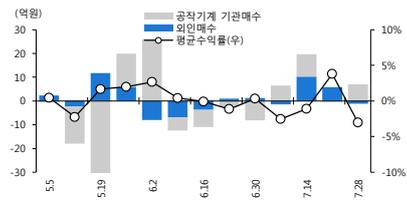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중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중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중목투자자의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중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4년5월12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조건 비율(%)	89.2%	10.8%	-